

민주·조국혁신당 등 5당, 교섭단체 요건 완화 공동선언

“내란 세력 재집권 저지를 위한 제 정당 연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5개 정당은 15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내란 종식·민주 헌정 수호라는 인식을 토대로 내란 세력의 재집권 저지를 위해 연대하겠다는 취지의 공동 선언문을 공개했다.

아울러 다수연합 실현을 위해 '대선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 및 결선투표제 도입'과 내란 종식을 위한 '반헌법 행위 특별 조사위원회 설치', '검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추진' 등에 함께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차 선언문을 서명했다.

해당 선언문에는 ▲내란 세력 재집권 저지를 위한 제 정당 연대 ▲민주 헌정 수호 다수연합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대선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 마무리·결선투표제 도입) ▲사회 대개혁·기본권 강화·지방분권 등 국가 미래 과제 대선 공약 추진과 차기 정부 국정 과제로 실천 등이 담겼다.

'검찰·감사원·방첩사 등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한다', '윤석열 파면에 함께했던 민주 헌정 수호 세력이 참여하는 제2기 원탁회의 출범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힘을 모은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6월 3일 대선은 헌정 수호 세력과 헌정 파괴 세력의 역사적 대결"이라며 "국민께서는 내란을 끝내고 정권을 교체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리셨다. 우리는 그 명령에 민주 헌정 수호 세력의 강력한 연대로 응답할 것"이라고 했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다시 살아난다. 오늘 원탁회의가 중요한 이유"라며 "모든 국민을 위한 모두의



박찬대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직무대행, 박당대표 직무대행, 윤종오 진보당 상임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뉴스시스

대통령을 함께 만들겠다. 민주주의와 헌정을 지키는 대연합으로 포용·연대하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상임대표 직무대행은 "지금의 상황이 우리의 연대가 더욱 튼튼하게 전진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모든 것을 열어놓고 연합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주장했다.

윤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원탁회의의 두 번째 선언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민주 진보 진영의 공동 출발"이라고 했고,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민주 진보 세력의 최대 선거 연합이 성공하려면 헌정 질서를 수호하려는 세력들이 함께 힘을 키우고 함께 커지고 더 크게 신뢰해야 한다"고 보냈다.

다만 이들은 대선 연대에는 뜻을 모았

지만, 정당별 후보 출마 여부가 달라 당장 공동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가동하는 데까지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원탁회의를 마친 뒤 '공동 선대위 개념으로 운영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현행 선거법상 이런 틀을 갖추지 않고 다른 정당의 대선 후보를 위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며 "만약 유력 대선 후보 한 분으로 결정하고, 선거 연대를 통해 당선을 위한 총력 활동을 한다면 공동 선대위 같은 틀이 필요하지 않겠다"라고 답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실제로 후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선언문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각기 처한 상황과 처지가 달라서 그런 것"이라며 "선거 캠페

인을 같이 하는 것과 공동 선대위를 구성하는 부분에서 제한은 있지만, 그 제한에 대해 검토해 논의된 바는 없다"고 부연했다.

또 교섭단체 완화·반헌법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헌법 20석에서) 몇 명으로 한다는 구체적 합의가 있는 건 아니다. 그 방향에 대해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반헌법 특위는 정부 위원회 형식으로 설치되는 형식으로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했다.

한편 이들 5당은 지난 2월 19일 원탁회의를 정식 출범하며 내란 종식의 완수, 반헌법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정치·사회·권력기관 개혁 및 민생 경제 살리기 등을 다룬 첫 공동 선언문을 공개한 바 있다. /뉴스시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 대진표 완성

서류심사 거쳐 '100% 국민 여론조사'로 1차 컷오프
김문수·홍준표·한동훈 '3강'... 나경원·안철수 등 거론
'한덕수 차출론' 여전... 박수영 "출마 축구 의원 54명"

국민의힘의 6·3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대진표가 15일 확정된다. 4명만 살아남는 1차 예비경선(컷오프)을 앞두고 후보들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날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서류 심사를 거쳐 하루 뒤인 16일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로 4명을 뽑아 2차 경선을 치르게 된다.

2차 경선에서는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결선에 오를 후보 2명을 가려내는데, 여기서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양자 결선은 치러지지 않는다. 결선은 2차 경선과 마찬가지로 당심과 민심을 절반씩 반영한다.

현재까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경선 후보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이철우 경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 8명이다.

당초 후보 명단이 10명을 훌쩍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윤상현 의원 등 대선주자들의 불출마는 '4강' 경쟁에서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오 시장의 경우 결선 진출이 유력한 후보로도 분류됐던 만큼 당내에서는 오 시장 지지율을 누가 가져 갈지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서는 김 전 장관과 한 전 대표, 홍 시장을 '3강'으로 보고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나 의원과 안 의원이 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나 의원과 안 의원 측 모두 2차 경선 합류를 자신하고 있다. 나 의원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꾸준히 기각·각하를 주장해왔던 탄핵 반대파(반탄파)라는 점에서 당심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반면 안 의원은 탄핵 찬성파(찬탄파)로 오 시장과 유전 의원을 지지했던 표심을 흡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나 의원은 지난 13일 YTN 라디오에서 "지금도 탄핵을 반대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오 시장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오 시장은 아마 특별한 어느 후보를 돕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오 시장과 유전 의원이 불출마를 했는데 그 표는 중도표 아닌가. 중도를 지향하는 표는 안 의원에겐 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출마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다만 한 대행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은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빅텐트'를 치면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실제로 성일종·박수영 의원 등은 한 대행 출마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당 지도부가 자체를 요청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이들은 성명에 참여한 의원들이 54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3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어제까지 정확하게 54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성명에 참여했다)"며 "당직자들은 이런 걸 못 하니 빼고 한 전 대표 지지자 18명을 빼면 상당수가 한 대행 출마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시스

우 의장 “韓대행, 대정부질문 또 불출석 매우 유감… 왜 안 나오냐”

“한, 본회의의 출석해 국회의원 질의에 정정당당하게 답해야”
‘이완규 등 지명철회결의안’에는 “국회 의견 밝힐 필요있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를 연속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의 전 기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어제도 (총리가 대정부질문에) ‘나오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국민이

물어보는 것에 답변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안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국민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왜 안 나오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정정당당하게 답변하는 것을 통해 국민에게 답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고 했다.

헌법재판관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을 놓고 국민의힘이 편파적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우 의장은 “국민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22대 국회의 의무이고 당연히 국회의장은 헌법에 따라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임무를 띠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가 이제 50여 일 남았다”며 “그런 짧은 기간을 남겨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기관,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헌법학자 다수의 견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입법조사처의 의

견을 수렴해서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듣고 부담하다고 생각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소송, 가처분소송을 했다”며 “그런 상태인데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와 가처분 심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국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회의 의견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국회의장은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뉴스시스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주최  장성군

주관 장성군축제위원회



제24회

 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

2025. 5. 10. - 5. 11. 장성 황룡강변

전야제 5. 9.(금)

뮤직 페스티벌 5. 10.(토)

나들이 5. 12.(월)-5. 18.(일)

 장성군 2025 장성군축제 방문의 해

